● 공모부문/ 독서감상문 : 청소년 부문

전태일 평전을 읽고

이정임(고양시 행신고등학교 2학년)

너무도 당연한,
그러나 죽음으로써만 가능했던
- 〈전태일 평전〉을 읽고 -

이 책을 읽는 내내 난 하나의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열 여덟 살, 어린 소녀가 우연히 만나게 된 한 젊은 노동자의 삶과 죽음. 그 삶과 죽음 앞에서 느끼게 된 의문들……. 이 글은 아마 그 의문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답 찾기가 될 것이다.

이 책을 읽고 내가 처음 품게 된 의문은 '왜 이제서야? 였다. 나는 왜 이제서야 이 책을 읽게 되었는가?

〈전태일 평전〉에서 나는 몸서리 쳐지는 절망을 보았다. 너무도 암담한 현실. 며칠을 굶어야 했고 나무 상자 안에서 고열로 앓는 동생을 껴안고 떨어야 했던 유년의 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을 내일이 주는 절망. 전태일의 어릴 적……. 아니다. 다시 말하자. 어떻게 그것이 전태일만의 삶이었을까? 단지 전태일만의 삶이 아닌 가난한 이웃들의 삶 앞에서 나는 가슴이 턱하고 막혀왔다. 어떻게 사는 게…… 사는 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전태일과 평화시장의 어린 여공들 그리고 가난한 이들의 이야기는 가슴이 아픈 만큼 나에겐 막막한 어둠이고 절망이었다.

하지만 내가 이 책에서 절망만을 본 것은 아니었다. 어린 여공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불꽃같은 의지를 불태우던 전태일의 모습은 팔뚝에 후드득 돋는 소름이었다. 그 감정을 무엇이라 표현해야 할까?

"나는 돌아가야 한다. 꼭 돌아가야 한다. 불쌍한 내 형제의 곁으로, 내 마음의 고향으로…… 내 이상의 전부인 평화시장의 어린 동심 곁으로……

조금만 참고 견디어라. 너희들의 곁을 떠나지 않기 위하여 나약한 나를 다 바치마." (전태일 평전 144쪽 일기 중에서)

타인을 위한 삶이란, 더구나 그 타인이 가난하고 못 배워서 밑지는 인생일 때, 그들을 위한 삶이란 그 감정만으로도 숭고함이 될 것이다. 하지만 전태일은 밑지는 인생인 가난한 이웃들에게 감정적 동정만을 가진 것이 아니었다. 바보회나 삼동친목회를 통하여 불의한 것들을 바로잡고 인간다운 세상을 만들어 보려 했던 선구자였고 실천가였다. 이제 이야기할 수 있다. 내 팔에 후드득 돋아나던 소름은 위대한 삶과 정신 앞에서 느끼는 경외였다는 것을.

분노. 감히 말해보고 싶다. 이 책을 느끼며 내가 느낀 또 다른 감정은 분노였다는 사실을. 아직은 어린 내가 세상에 분노를 느꼈다니……. 우습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 만큼 세상이 우스울 수도 있는 노릇일 거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1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햇빛을! 하루 16시간 노동이 웬말이냐!" (전태일 평전 279쪽 중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전태일 평전 295쪽 중에서)

노동자들과 평화시장 어린 여공들이 전태일이 죽는 날 시위 현장에서 외쳤던 함성이라고 한다. 세상에! 그들이 요구가 단지 일주일에 단 한 번, 일요일에 햇빛을 보는 거였다니. 전태일이 죽어가면서 외친 소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도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다." 였다니. 너무나 당연한, 하지만 한 청년이 죽음으로 저항해야 할만큼 이 사회는 소외받은 이들에게 가혹한 땅이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떠올린다면 어린 학생의 가슴에도 분노쯤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 불의에 모든 것을 걸고 맞서는 삶 앞에서 경외를 느끼는 것도 당연할 것이다.

다시 앞서의 의문으로 돌아가야 겠다. 나는 왜 이제서야 전태일을 만나게 되었을까?

어둠의 시대.

인간성과 자유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안네의 일기〉는 언제나 빠짐없이 청소년 권장도서였다. 방학이면 숙제가 되기도 했던 〈안네의 일기〉는 불멸의 고전으로, 피해갈 수 없는 과정으로 우리 앞에 턱하니 제시되곤 하였다. 하지만 〈전태일 평전〉은 그 동안 우리에게 추천 도서도 아니었고 방학 숙제도 되지 못하였다. 먼 이국의 소녀 안네 프랑크처럼 어둠의 시대를 살다간 영혼. 그 어둠의 시대를 밝히는 불꽃의 삶을 살았던 청년 전태일. 도대체 무엇이 우리와 그의 만남을 이제껏 가로막고 있었던 것일까? 이국소녀의 죽음 앞에서는 참혹한 인간성 말살 현장에 피어난 꽃이니 뭐니 하는 찬사의 말을 아끼지 않으면서 전태일의 죽음 앞에서 우리 사회는 왜 침묵하고 있을까?

"힘에 겨워 힘에 겨워 굴리다 다 못 굴린, 그리고 또 굴려야 할 덩이를 나의 나인 그대들에게 맡긴 채, 잠시 다니러 간다네. 잠시 쉬러 간다네. … 생략 … 이 순간 이후의 세계에서 또다시 추방당한다 하더라도 굴리는 데, 굴리는 데, 도울 수만 있다면, 이룰 수만 있다면……." (전태일 평전 맨 마지막 쪽, 전태일의 유서 중에서)

여기에 나의 의문에 대한 해답이 있는 것일까? 전태일이 굴리려했던 덩이. 자신의 몸을 태움으로써 앞으로 굴려 나가려했던 우리의 꿈들. 밑지는 인생들이 사람 대접을 받는 세상. 우리는 결국 그 꿈을 이루었을까? 진실로, 진실로 이 땅에는 사흘 밤이나 주사를 맞고 일했더니 이젠 보이지도 않고 손이 펴지지 않아 내가 바보가 되나 보다고 울먹이는 열 여섯 살 짜리 시다는 없는 것일까? 평화시장 열 여섯 살 여공들은 얼굴을 달리한 채 여전히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산업 연수생이란 이름으로, 불법체류자라는 이름으로 우리 사회의 그늘에서 신음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그들이 겪는 비인간적 대우들을 우리는 심심찮게 접할 수 있다. 노예를 대하듯 가해지는 폭력, 불안한 신분 때문에 감당해야 하는 모욕들. 과연 그들이 전태일이 사랑했던 밑지는 인생들과 무엇이 다른가?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무시받고 멸시받아야만 하는 생명들.

우리와 전태일의 만남을 가로막는 장애는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여전히 그리고 완강히 존재하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멸시. 우리와는 다른 존재라는 데서 오는 무관심.

2002년 대한민국.

대한민국에는 여전히 평화시장의 어린 여공들이 그 이름을 달리한 채 존재하고 있었고, 그들에 대한 인간적 모욕과 인권 유린이 자행되는 치부를 가지고 있었다. 그 치부를 가리고 유지하기 위해선 우리의 무관심이 필요했을 것이고, 전태일과의 만남은 거부되어야만 했을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죄악이다.' 라고 점잖은 설교와 함께 말이다. 하지만 모든 죽음은 다르다. 죽음으로써 잊혀지는 죽음도 있으나, 영원히 기억되는 죽음도 있는 것이다.